

선교와 복음화 웨비나 - 2025년 5월

조 웰스 주교: 좋은 아침,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 전 세계 어디에서든 선교와 복음화에 관한 램베스 청원문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조 웰스입니다. 저는 이번 램베스 주교회의의 3단계 행사를 주관하는 국제 팀의 일원으로, 오늘은 선교와 전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이것이 램베스 쿨의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오늘은 각자가 처한 환경 속에서 이 통화를 진행하도록 격려하면서 몇 가지 주제와 원칙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영국뿐만 아니라 인도, 말레이시아, 모잠비크, 브라질 등 세계 각지에서 온 특별한 게스트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룹 토론을 위한 성경 공부 자료를 소개할 예정이며, 이 모든 자료는 램베스 주교회의 웹사이트의 3단계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웨비나가 끝날 때까지 3단계 여정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길 바라며, 램베스 웨비나 요청에 응답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성경 공부를 진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무 심기일 수도 있습니다. 안전한 교회 임원을 임명하거나 오늘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섰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후 홀리오 머레이 대주교에게 자리를 넘겨드리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홀리오 주교는 램베스 청원문 운영 그룹의 의장이자 중앙아메리카의 파나마 주교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에 하느님의 축복을 간구합시다.

주 하느님, 오늘 이 날, 우리 각자에게 베푸신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세상과

당신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간구합니다. 아멘.

홀리오 주교: 감사합니다, 조 주교님. 친구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파나마의 주교인 홀리오 머레이 톰슨이며, 선교와 복음화에 관한 램베스 청원문에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복음이 선포하는 구원과 구속을 세상이 받아들여야 하며,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하느님께서 행하셨고 하느님께서 행하고 계시며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실 모든 일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 말씀에 확신을 갖고 이를 되풀이하고자 합니다. 이 중요한 소명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 위해 3단계 기획단에서 저와 함께 봉사하는 두 분의 주교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남부 아프리카 성공회 레소토 주교인 비센티아 크가베 주교와 북인도 교회 델리 주교이자 전도 및 제자훈련 위원회 위원인 폴 스와롭 주교입니다. 비센티아 주교님, 선교와 복음화에 관한 램베스 청원문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비센티아 주교: 감사합니다, 홀리오 주교님. 이것은 성공회 주교들을 위한 2022년 램베스 **주교회의**에서 처음으로 고려되고 확인된 요청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선교와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이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명령의 맥락에서 우리의 토론을 구성하는 기초 메시지로 작용했습니다. 운 좋게도 요크 대주교 스티븐 코트렐과 칠레 대주교 티토 무노즈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요청은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에 참여하라는 강력한 초대이며, 곧 검토할 구체적인 청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홀리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폴 주교님께서 전도와 제자훈련 위원회가 성공회 교회들이 램베스 부르심의 요청에 응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교님 자신의 상황에서의 제자훈련 노력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세요.

폴 주교: 감사합니다. 홀리오 대주교님. 위원회는 2026년부터 2036년까지 성공회를 위한 교회 개척을 통한 제자훈련의 새로운 10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비전 36(2036)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내년 아일랜드 벨파스트에서 성공회가 세계성공회협의회에서 모일 때 이 계획이 시작되기를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성공회 회원 교회들이 새 신자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양육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고 장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선교의 두 번째 표지처럼,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개척하도록 격려합니다. 이 람베스 부르심에 기반한 도전적이고 흥미로운 비전입니다. 제가 속한 델리 교구, 북인도 교회에서는 올해를 의도적인 제자 훈련과 제자 삼기의 해로 정했습니다. 제자훈련에 관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현재는 선교의 다섯 가지 표징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 9일에는 선교의 두 번째 표지인 양육하는 방법, 세례를 주는 방법인 가르침에 대한 세미나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올해 안에 나머지 세 가지 표식에 대한 후속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홀리오: 두 분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요청 중 하나는 각 교구가 교회를 활성화하고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여 아직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새롭고 창의적인 헌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분의 손님을 초대하여 서말레이시아 교구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문 hing 대주교님과 교구 교회 개척 책임자인 멜리사 텡 수녀님을 환영합니다. 문 대주교님, 교구의 교회 개척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문 주교: 감사합니다. 홀리오 대주교님, 영광입니다. 90년대에 전임 주교님께서 모든 교회가 성장하고,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고, 새로운 신자들이 생겨야 한다고 촉구하셨을 때만 해도 우리에게겐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성직자나 평신도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그래서 주교님께 여쭙봤더니 주교님이

세 가치를 제시해 주셨어요. 주교님은 모든 교회가 이 세 가치를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첫째, 모든 교회위원회는 매달 의제, 선교, 전도, 교회 개척을 논의할 때 반드시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셨어요. 둘째, 모든 교회위원회는 전도와 교회 개척을 담당할 사람을 임명해야 하는데, 성직자가 아닌 사람을 선호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셋째, 모든 교회위원회는 연간 예산에 전도와 교회 개척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0년 이 지난 후 모든 응답과 교회 통계를 취합하기 시작하면서 10년 동안 2000년까지 1만 2천 명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1년에 1200명, 한 달에 100명씩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매달 100명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교가 되었을 때에도 같은 생각을 계속하고 더 조직적으로 늘려서 계속 성장했고, 교회는 더 많은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200개 이상의 교회가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는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하는 전략의 아주 간단한 예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많은 것 중 하나일 뿐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할 때 기존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꺼내서 교회에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말하죠. 그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 잘 지내세요, 오늘 당신 생각이 났어요.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그 사람은 매우 놀랄 것입니다. 때로는 커피를 마시자고 초대하거나 특별한 예배에 초대하기도 하는데, 교회에 다시 오면 교회 가족을 발견하고 정말 보고 싶었고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그리스도교인에게도 똑같이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예 중 하나입니다. 하느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홀리어 주교: 예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멜리사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회 개척에 대한 경험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몇 가지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멜리사: 문 hing 주교님, 홀리오 대주교님, 저는 이제 알파 코스가 아시아 전역에서 복음 전도와 교회 연합, 공동체 건설에 사용되는 창의적인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알파를 전통적인 교회 개척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10년 전, 문 hing 주교는 알파 과정의 본거지인 런던 홀리 트리니티 브롬튼 교회에 쿠알라룸푸르에 교회 개척을 시작하도록 초청했습니다. 팀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처음에 1년 이상 가정에서 알파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었고, 오늘날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현재 영어 예배 3개, 중국어 예배 2개, 미얀마어 예배 1개, 청소년 및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으며 사회 활동 사역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인 수는 2,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활절 주일에는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고무적인 일이죠. 그 후 HTBB라는 교회 개척 단체는 쿠칭에 또 다른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 교회도 알파에서 시작하여 약 2년 만에 100명 이상의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결실을 맺는 전도는 직장에서의 전도이며,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기대가 큼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7번의 알파 과정을 통해 100명 이상의 직원을 전도했습니다. 그 결과 직장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직장이 가장 큰 추수밭이며,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연결과 사랑에 굶주리고 절실하다는 것을 모든 곳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대형 통신사에서는 12년 이상 매년 두 차례의 알파 코스를 운영해 왔으며, 누적 500명 이상의 직원과 벤더 및 공급업체 등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100%에 가까운 수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사업가는 쿠알라룸푸르 중심부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 빌딩에서 그 지역의 많은 직장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알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그는 자신의 건물 한

층 전체를 교회 개척을 위해 헌납했습니다. 홍콩에서는 여러 교회의 크리스천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 IFC와 ICC 빌딩의 직장인들을 알파에 초대하고 있으며, 몇몇 그룹은 개척까지 이어졌습니다. 지역 교회가 어떻게 연합하고, 지원하고, 무장시키고, 성도들을 파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은 사무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케이크 데코레이터이자 셰프인 한 사람은 자신의 집에서 바로 프라이빗 다이닝 알파 코스를 주최했습니다. 한 교회 신자는 알파를 자신의 헬스장으로 가져와 헬스장 이용자들이 등록할 수 있는 여러 수업 중 하나로 알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의사는 일주일에 한 번 점심을 위해 병원을 닫고 의사, 간호사와 함께 알파를 운영했습니다. 한 미용실 주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의 한 그리스도교 직장인 리더 그룹은 점심시간에 노래방 전체를 빌려 알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창의적이죠. 노래방에는 음식, AV 시스템, TV, 알파 소그룹 토론을 위한 여러 개의 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증기선 레스토랑 체인인 하이디라오에서도 알파가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창의적이고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공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캠페션과 파트너십을 맺고 3,200명 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400개 이상의 캠페션 소그룹을 위해 알파를 온라인으로 운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자원봉사자 그룹이 알파를 연중무휴 온라인으로 운영하여 이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은 사람들이 교회에 직접 참석하기 전에 안전하게 교회를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교회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공간은 성경에서 말하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복음이 땅을 덮으리라'는 말씀을 실감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네,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홀리오 대주교님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2024년에 2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알파를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는 150만 명에 도달하는 데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만 50만 명 이상, 아시아에서는 작년 말 최신 알파 청소년 시리즈 출시 후 3개월 만에 10만 명 이상의 Z세대와 알파 세대 청소년이 알파를 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Z세대가 이끄는 조용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 출석률이 4%에서 16%로, 젊은 남성의 출석률이 4%에서 21%로 증가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젊은 남성들이 처음으로 교회에 가고 싶어하는 비율이 여성을 넘어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저에게 많은 희망을 줍니다. 하느님은 움직이고 계시고 복음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우리 모두 함께 가속도를 내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홀리오 대주교: 하느님께서 움직이시고 복음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게스트를 소개하기 위해 조 주교님에게 자리를 넘기겠습니다.

조 대주교: 감사합니다, 홀리오 대주교님. 이제 곧 동남아시아에서 남부 아프리카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웨비나에는 필리핀, 트리니다드토바고, 브라질, 프랑스, 미얀마, 바베이도스, 말레이시아, 파푸아뉴기니, 뉴질랜드, 솔로몬제도, 영국, 부룬디, 파키스탄, 인도, 바레인, 케냐에서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국가들만 나열한 것입니다. 이제 모잠비크 앙골라 성공회 니아사 교구에서 오신 교리교사 프레이저 음중구 씨를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프레이저. 말라위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모잠비크에서 어떻게 전도와 교회 개척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프레이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 이름은 프레이저 음중구입니다. 저는 1993년 4월 2일 말라위에서 열린 SCOM이라는 초교파 그리스도교 단체의 모임에서 거듭났습니다. 그 집회 이후 저는 성공회 교회에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오거나 예수님을 주님과 구세주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교회와 다른 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넘어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고 전도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당시 유다 목사님이 모잠비크 니아사 교구의 빈센트 음소사 주교에게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원래 제 부모님이 모잠비크 출신이셨거든요. 그래서 음소사 주교님은 '말라위에서 많은 일을 했으니 이제 모국인 모잠비크에 와서 모잠비크 복음화를 도와달라'며 제가 모잠비크에 와서 복음화를 돕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잠비크에 가서 세인트 스티븐이라는 교회를 맡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서 아주 잘 해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 교회에는 매주 일요일마다 50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4년 후 제가 떠났을 때는 매주 일요일마다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았습니다. 저는 교구가 한곳에 모여 기도할 수 있도록 매달 교구를 위한 기도의 밤을 도입했습니다. 교구 전체에 기도의 열기가 퍼지도록 하기 위해 도입했습니다. 또한 교구 내 전도팀 구성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제가 교구 내 전도팀 총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말라위로 돌아왔어요. 저는 어퍼샤이어 교구의 마수쿠 본당에서 제자훈련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 주교: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교구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교회 개척은 어떤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프레이지: 저희는 야외 예배를 진행합니다. 성공회가 없는 곳에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노방전도를 진행합니다. 그곳에서 3~4일 동안 설교를 한 후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울 사람들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매달 또는 매주 일요일에 그곳에 가서 기도회를 조직하고 진행합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기도를 인도하는 방법을 알게 될 때까지 최소 2~3개월 동안 이 일을 합니다. 또한 예수님 영화를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보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자신이 왜 크리스천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장려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회원들이 이사를 갈 때마다, 예를 들어 이곳 모잠비크에서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할 때 성공회가 없는 경우 다른 교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그곳에 가면 당신이 대사이고, 당신의 가족, 아내, 자녀와 함께 교회를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입하고, 셸이 되고, 스테이션이 되고, 그 과정에서 교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부터 시작하세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도록 격려하여 사람들이 성도들을 볼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고 있나'라고 질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기도할까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부를 수 있고 성공회 신자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성경 공부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더 깊게 키우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깊이 들어가나요?

프레이저: 예, 그리스도교에서 신앙을 깊게 하는 방법에는 기도, 성경 공부, 간증, 교제라는 네 가지 기본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들에게 권장하는 것들입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깊게 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도 더 깊어져야 합니다. 간증도 더 깊어져야 하고, 교제도 더 깊어져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자주 올수록 성경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 때문에 교회에 자주 와야 합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함께 모이기를 전혀 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설교 후 후속 조치를 취하여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그리스도인 생활을 더욱 깊게 합니다.

조 주교: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 세계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프레이저: 제 간단한 조언은 잃어버린 자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길을 잃었고,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선발하고, 장비를 갖추고, 훈련시켜서 개척 교회로 보내야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의 가족과 이웃에게 교회를 시작하거나 예수님을 전하도록 격려할 수 있습니다.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이웃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어느 날 밤 함께 모여 성경에 대해 토론하고, 이를 통해 교회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주교와 사제들은 전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시급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들은 교구에서 전도가 죽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 주교: 감사합니다, 프레이저. 사제들과 주교들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네, 이제 홀리오 대주교님께 이 자리를 넘기겠습니다.

홀리오 대주교: 훌륭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조. 그리고 여러분의 기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나라가 임하소서'(Thy Kingdom Come)의 케미 밤보세와 브라질 이그레자 성공회 남서부 교구의 프란시스코 다 실바 주교님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케미, <주님 나라 임하시며>가 무엇이며 당신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케미: 감사합니다, 대주교님. 저는 케미 밤보세라고 하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밥 키 목사님을 비롯한 놀라운 소규모 팀과 함께 일하고 있는 Thy Kingdom Come 프로젝트 리더입니다. 간단히 말해, '주님 나라가 임하소서'는 그리스도교인들이 친구, 가족, 지역사회, 국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장려하는 기도 운동입니다. 캔터베리 대주교의 전도와 증거에 관한 고문이었던 크리스 러셀은 항상 기도가 전도의 첫 번째 사역이라고 말하곤 했는데, '주님 나라가 임하소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하느님을 알고 싶어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6년 캔터베리 대주교와 요크 대주교는 이를 염두에 두고 '주님 나라가 임하소서'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국 교회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 요청이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이 기도는 전 세계적인 에큐메니칼 기도 운동으로 꽃을 피웠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 걸쳐 약 85개의 다양한 교파와 전통을 가진 수천만 명의 그리스도교인들이 승천과 오순절 사이의 이 귀한 날 동안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다섯을 위해 기도하세요'라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 평범한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알고 사랑하는 다섯 사람이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전 세계 여러 지역과 다양한 교파에 걸쳐 정말 잘 통합니다. 많은 교회, 가족, 개인이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교회는 지역 학교를 방문해 청소년을 위해 기도하고, 병원을 방문해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등 다양한 장소에 들러 지역사회를 순회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양한 장소를 접촉점으로 삼아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때로는 단독으로, 때로는 지역 내 다른 교파의 교회들과 함께, 때로는 세계 다른 지역의 교회들과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때로는 교회 건물 안에, 때로는 교회 부지가 있는 경우 외부에 기도처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을 실제로 만나기 위해 다양한 기도의 방식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부터 대규모 성당 행사까지 다양한 장소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저희 웹사이트에는 이를 돕기 위한 다양한 리소스가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기쁨과 특권은 지난 10년 동안 '주님 나라가 임하소서'에 접수된 수천 건의

간증,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의 간증,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워진 사람들의 간증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제자 훈련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 교회들. '주님 나라가 임하소서'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교회, 가족, 개인이 11일 동안 기도할 수 있도록 많은 리소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료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스티븐 코트렐 대주교가 집필한 인쇄 자료인 [9일 기도\(노베나\)](#)를 여러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처나 기도 걷기 등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도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자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를 위한 모든 콘텐츠가 담긴 앱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리소스도 있습니다.

홀리오: 정말 감사합니다. 케미, 말씀하신 대로 다섯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저에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프란시스코 주교님을 초대해 '주님 나라가 임하소서'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전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주교님의 교구에서 이러한 영향을 보여주는 한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프란시스코 주교의 미래에 대한 희망은 무엇인가요?

프란시스코 주교: 홀리오 대주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전 세계 여러 지역의 모든 분들께 안녕하세요. 기도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주님 나라가 임하소서'의 경험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사람들을 움직이고 기도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하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많은 순간에 항상 기도로 시작하셨음을 기억하세요.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사역의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가족으로서 우리의 노력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5년부터 이 캠페인의 시작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일 중 하나는 자료, 특히 노베나를 포르투갈어로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캠페인의 풍부한 포인트이며, 정말 보편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저희는 남반구 출신이고, '주님 나라가 임하소서' 캠페인은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 주간과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회 신자로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매우 긍정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은 일치를 위한 기도 주간에 우리 모두를 위한 좋은 지원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는 기도한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 행동이 수반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이 캠페인의 좋은 점입니다. 제가 램베스 주교회의 전에 2022년 노베나를 번역했을 때 저스틴 대주교가 그해에 쓴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노베나의 본문에서 우리가 회의 기간 동안 공부한 책인 베드로 전서의 한 구절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대주교님은 기도는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느님의 백성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들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개인 집의 방에 가서 문을 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삶과 사람들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미래는 우리가 다섯 가지를 위해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무를 심거나 노숙자에게 음식이나 물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단계와 행동을 캠페인에 추가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올해도 좋은 주님 나라가 임하소서 캠페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홀리오 대주교: 둘 다 감사합니다. 케미,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주님 나라가 임하소서에 접속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케미: 네, '주님 나라가 임하소서'는 5월 29일에 시작해서 6월 8일에 끝납니다. 모든 자료는 '주님 나라가 임하소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주교님.

홀리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셨습니다. 이번 소명을 더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을 지원하기 위해 몇 가지 새로운 리소스를 소개해드리고, 제 친구인 케논 스티븐 스펜서가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입니다.

스티븐: 안녕하세요, 홀리오 대주교님, 세계성공회공동체 사무국의 스티븐 신부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성경 공부 자료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을 방문한 것은 증거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구절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루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70 명의 남녀를 불러서 갈릴리 전역으로 파송하는 장면을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성경공부는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고, 각자의 자리에서 실제적인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리소스에 대한 링크도 보내드릴 것입니다. '의도적 제자' 리소스 허브에는 교구에서 제자 훈련을 장려하는 방법에 대해 5개 언어로 된 많은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미 보셨던 alpha.org 웹사이트, 교회 개척에 관한 성공회 웹사이트, 그리고 우리가 들어본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웹 세미나가 끝나면 이 모든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웹사이트에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보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 리소스를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 주교: 감사합니다, 스티븐. 이제 들어온 질문 중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알파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멜리사에게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누군가가 알파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고, 네팔에서 온 네팔 성공회 청년 네트워크의 청년 회장이 알파 과정을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온 하느님의 종 중 한 명이 소개한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진행하지 못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알파를 시작하는 방법과 알파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안내해 주시겠어요?

멜리사: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약 160개국에 현지 알파 팀이 있습니다. 채팅방에 제 이메일을 남기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melissa.theng@alpha.org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현지 직원과 연결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터넷에서 alpha.org를 검색해 보세요. 거기에도 정보가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주교: 감사합니다, 멜리사. 문 주교님에게 전도와 교회 개척, 그리고 그들의 관계에 대해 질문합니다. 미국에서 온 질문입니다. 전도를 통해 교회 개척을 기대해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가 줄어드는 우리 상황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교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 나올까요? 저는 우리에게서 충분한 교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있는 교구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 목사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줄어드는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도와 교회 개척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존 교회를 개척해도

됩니다. 기존 교회를 부흥시키면 됩니다. 자신의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젊은이들이 없다면 이제 자신의 교회에 젊은이들을 개척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너무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때때로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교회를 떠난 젊은이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셀 그룹과 하우스 펠로우십을 하면서 그들을 격려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는 친구가 없고, 교회는 왠지 제 머리 위에 군림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시 해석하고 재조정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젊은이들이 관련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프레이저의 말처럼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의 삶이 차이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만 하고 삶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조 대주교: 감사합니다, 문 대주교님. 미국에서 편지를 보내주신 비센티아 주교님, 이 질문입니다: 선교 활동과 식민주의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선교 사업을 할 때 성공회의 식민지 과거와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요?

비센티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신중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들었던 후렴구는 우리가 그것을 모델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할 수 없는 일을 사람들에게 하라고 말할 수 없으며, 우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 과거를 인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선교사들이 했던 일과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복음화를 위해 하는 일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 주교: 감사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 있나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항상 있는 질문이죠, 그렇죠? 폴 주교님, 이 질문은
브라질에서 온 질문이지만 인도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새로 개척된
성공회를 도울 수 있는 주요 자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자훈련에
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소서'와 같은 자료는 이미 인터넷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회 웹 사이트에는 인터넷에 꽤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상황에 맞게 자체 자료를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자료는
자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조 주교: 감사합니다. 폴 주교님.

프란시스코 신부 : 한 가지 더, '주님 나라가 임하소서'는 캠페인과 연계된
실천적 행동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훌륭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사는 도시에는 노숙자가 많기 때문에 기도를 구체적인 행동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교인으로서 물을 들고 거리로 나가 노숙자들에게
물을 나눠주는 식이죠. 이것은 '주님 나라가 임하소서' 캠페인의 실질적인
실천입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소서'는 사람들이 기도와 연결된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조 주교: 감사합니다. 주교님. 케미, 주님 나라가 임하소서에 대한 질문이 더
있는데, 먼저 스페인어로 되어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처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데, 기도처는 무엇이고 어디에 있나요?

케미: 네, 스페인어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노베나([한국어 노베나](#))가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에 있으며 기도처에 대한 정보도 웹사이트에 있습니다.

조 주교: 감사합니다. 케미. 비센티아 주교님, 그레이엄스타운 교구의
ACSA(남아프리카 성공회)에서 보내온 질문입니다. 남아프리카성공회가 유지 보수

모드에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전도와 교회 개척을 되살릴 수 있을지 조언해 주시겠어요?

비센티아: 그레이엄스타운 유지보수 모드이지 남아프리카성공회가 유지보수 모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도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사역(은 단순히 주일에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사역이며, 주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가정 셀의 전통과 조직의 소그룹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의 영을 새롭게 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는 주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6일이 있습니다.

조 주교: 그레이엄스타운에 다시 도전장을 던지는 아름다운 방식이군요. 멋지네요. 폴 주교님, 이걸 주교님을 위한 질문입니다. 현재 델리 지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복음 전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폴 주교: 28개 주 중 12개 주에서 개종 금지법이 있고, 특정 주에서는 집에서 기도회를 열어도 투옥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도한 것 중 하나는 사실 워크숍을 열었는데, 선교의 다섯 가지 표지에 대한 첫 번째 워크숍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 즉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워크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한 일은 개인 간증을 서로 나누는 연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워크숍의 모든 내용은 개인 간증을 서로 나누고, 각자의 일터에서 간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결국은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디에 있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 내에서도 적어도 지금까지는 도시에서는 큰 반대에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들을 초대하여 3일간 대화를 여는

전통적인 방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헌신을 요청하는 제단 호출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문제를 해결해 온 두 가지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조 주교: 감사합니다. 폴 주교님. 프레이저, 이걸 당신을 위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평신도들이 제자 삼는 것이 교회의 최우선 과제라고 믿게 만들 수 있을까요?

프레이저: 평신도들은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사제들이 존경할 수 있도록 평신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설교를 충분히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한 달에 한 번만 교회에 오는 사람입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 자주 출석하고 교회의 모든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이 사람 없이는 못하겠다'고 말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가서 설교하자고 하면, 이미 당신이 신뢰할 수 있고 교회에서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신부님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평신도들은 성공회 신자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하러 나간다고 하면 모두가 '그래, 우리도 가서 이 사람이 사는 삶을 살아보자'라고 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 주교: 감사합니다. 프레이저, 멋지네요. 멜리사도 웃는 게 보이네요. 하지만 멜리사,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디지털 전도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전도 훈련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멜리사: 네. 그래서 실제로 전도와 제자 양육이라는 알파의 맥락에서 알파를 온라인으로 운영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에 초대하여 알파 과정을 함께 진행합니다. 알파 코스가 진행되는 약 11주 동안 매주 모임을 가집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19 이후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교통 체증을 피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물리적으로 장소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3주 정도 지나면 어느 시점에는 게스트와 물리적으로도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교 행사, 식사, 볼링 등 그룹이 관심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초대합니다. 그리고 매주 온라인으로 만나기 때문에 관계가 매우 빠르게 발전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직접 만나게 되면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친밀감이 높아지고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그들은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이미 그리스도교인인 경우 교회에 가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직접 만나서 형제자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기 때문에 온라인의 편리함과 물리적 모임의 필요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도와 디지털 교회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사람들이 온라인 교회에 들어가서 어떤 교회인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교회인지 등을 살펴본다는 힐송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히 실제 교회에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따라서 교회가 그들에게 그 길을 제공한다면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수 있는 또 다른 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스트리밍과 같을 수는 없지만 디지털 공간에서 온라인 교인들을 제대로 목양할 수 있을까요? '아, 우리가 하는 것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들을 목양하고 제자화할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정답은 아무도 없으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안전하기만 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조 주교: 감사합니다. 벨리사,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은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케미도 원할 것 같아서 스티븐에게 물어볼게요. ‘주님 나라 임하소서’와 알파 코스에 대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회 갱신의 기초가 될 기도 사역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자훈련과 전도에 대한 관상적 접근법이나 가톨릭의 전례적 접근법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나요? 스티븐?

스티븐: 물론 기도는 모든 것의 기초이며, 성장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고 기도하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세계 그리스도교 명상 공동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전 세계적인 단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관상의 기도, 하느님의 임재 안에 있는 명상,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은총과 성령을 받는 기도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기초입니다. 그러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찾아보고 기도하세요. 그리스도교 명상을 위한 세계 공동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간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조 주교: 정말 감사합니다. 스티븐. 문 대주교님, 이 질문을 참을 수 없지만 정말 빨리 대답해 주세요. 교회가 너무 작아서 다른 교회를 개척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문 목사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 명이든 20 명이든 교회가 시작하면, 새로운 교회,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면 하느님께서 모교회나 개척교회를 잊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제한이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우리 민족을 전도해야 하며, 그들이 성장해야 한다는 개념을 가질 때까지 전도해야 합니다. 성공회는 전통적인 교회이고 우리는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왔을 때는 오래된 교회였어요. 새로운 교회가 아니었죠. 새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낡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전도하고, 보여주고, 이끌고, 말하고, 설득해야

했습니다. 때때로 그들의 사고방식을 깨는 데 1년이나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 주님을 찬양합니다.

조 주교: 정말 감사합니다. 스티븐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중 하나는 교회는 나무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시스코 주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교회가 기도하면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깊으면 나무가 밖으로 뻗어나가 많은 새와 많은 사람들, 많은 공동체의 쉼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성장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홀리오 대주교입니다. 모든 패널에게 감사드립니다.

홀리오 대주교: 여러분, 이 웨비나에서 우리는 많은 내용을 다루었고, 성찬식 주변의 이야기와 함께 간증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성경 공부 자료를 사용하여 부르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또한 승천절과 오순절 사이에 진행되는 '주님 나라가 임하소서' 이니셔티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담도 듣고 싶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세요(shareyourstory@lambethconference.org). 끝으로, 여러분의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월 17일과 18일에 열리는 다음 웨비나에서 다시 뵙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웨비나에서는 종교 간 소통에 관한 램베스 청원문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자세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하느님, 램베스 콜에 이어 선교와 전도에 관한 이번 웨비나에 참여한 참가자들과 발표자들에게 감사드리며, 그들이 기여한 중요한 공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람들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특히 아직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과 지역에 선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준비시키고, 능력을 주시고, 영감을 주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가지고 계신 세계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옹호자들을 훈련하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